

손흥민이 만든 기회…최종전 비겨도 챔스 진출

토트넘 핫스퍼가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에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 토트넘의 4위 차지 가능성은 거의 100%에 수렴한다.

아스날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1~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중앙 수비수 벤자민 화이트의 자책골과 브루누 기마랑이스에게 해기골까지 내주며 0-2로 완패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토트넘에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2 뒤진 아스날은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채 여전히 5위에 머물렀다. 토트넘은 21승 5무 11패(승점 68)로 4위, 아스날은 21승 3무 13패(승점 66)으로 5위에 오른 가운데 오는 24일 각각 노리치 시티, 에버튼을 만난다.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손흥민이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의 중앙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손흥민에게 거친 몸싸움으로 밀착마크하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퇴장당한 루 화이트가 뉴캐슬전에 나오지 못하게

아스날 중앙수비 무너지며 뉴캐슬 원정 0-2 완패
토트넘, 노리치전 비겨도 골득실로 챔스리그 진출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이 1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 2021~22 EPL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됨에 따라 부상에서 회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화이트가 중앙 수비를 맡았고 결국 자책골을 내주기까지 했다. 가브리엘 마갈랑이스 역시 토트넘전에서 부상을 당하고도 중앙 수비수가 남아있지 않아 뉴캐슬전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고 최고의 경기

력을 보여주지 못한채 후반 중반에 교체되어야만 했다.

이제 주도권은 토트넘에 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파이트 씨티에잇은 아스날과 뉴캐슬 경기가 끝난 뒤 곧바로 올 시즌 EPL 4위를 어느 팀이 예측하면서 토트넘의 확률

을 96%로 평가했다. 아스날은 겨우 4%다. 북런던 더비가 끝난 뒤 평가만 해도 아스날의 4위 확률은 54%였는데 단 한 경기 패배로 50% 포인트가 폭락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최종 38라운드 전망도 희비가 엇갈린다. 토트넘의 상대팀은 이미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다. 물론 노리치가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상대로 1-1로 비기며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득점왕 타이틀을 노리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공격력을 쉽게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스날이 만날 팀은 에버튼으로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팀이다. 에버튼이 오는 20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잔류가 확정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스날전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토트넘이 노리치와 비기고 아스날이 승리해도 승점 69로 같아지긴 하지만 현재 골득실에서 토트넘이 무려 15골이나 앞서기 때에 이를 뒤집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뉴스

내달 5일 ‘스케이팅 올스타 2022’

곽윤기·이준서·김아랑·이유빈 등 참여



온메달을 딴 한국의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곽윤기(왼쪽)와 이준서가 1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플리워 세리머니에서 빙둔들을 들고 있다.

빙상 팬들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타들과 만날 수 있는 ‘스케이팅 올스타 2022’가 6월 5일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다.

주최사인 브리온컴퍼니는 17일 “코로나19 여파로 그간 교류하지 못했던 빙상 스타들과 팬들이 뜻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며 해당 이벤트 개최 소식을 알렸다.

브리온컴퍼니에 따르면 스케이팅 올스타 2022에서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 정재원(의정부시청)과 김민석(성남시청)도 함께 한다.

참가하는 선수들의 명단은 9월부터 스케이팅 올스타 2022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뉴스

‘음주 폭행’ 한규식 코치 100경기 출장 정지 징계

술을 마신 뒤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규식 NC 다이노스 코치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별위원회를 열고 한규식 코치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KBO는 규약 제 151조 ‘풀워손상 행위’에 근거해 한 코치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규식 코치는 지난 3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NC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했고, 한 코치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KBO에 따르면 NC 구단은 지난 12일 한 코치와의 계약 해지 승인서를 KBO에 제출했다.

한편 NC 구단은 한 코치의 폭행에 연루된 코치를 사건 직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광주체육중 전국조정대회 ‘금빛 물살’

김지선 싱글스컬 우승…더블스컬 동메달



광주체육중학교 조정부가 지난 14~16일 전북 군산시 금강 하구둑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회인 ‘제19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서 여자중등부 싱글스컬에서 우승과 더블스컬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김지선(3학년) 학생은 광주체육중 싱글스컬 1000m에 출전한 황은주(2학년), 노가흔(1학년) 학생들은 초반 스타트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정신력을 발휘해 4:43.4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3위를 차지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양궁월드컵 점수 확인

17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2022현대양궁월드컵 컴파운드 예선전, 각국 출전선수들이 과녁의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양궁월드컵은 이날부터 22일까지 38개국, 381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광주국제양궁장(예선)과 광주여대(결승)에서 펼쳐진다.

/뉴스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일정 확정…7월27일 한일전

7월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EAFF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지는 동아

시안컵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남자부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4개국이 출전한다.

여자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경쟁한다.

남자부 경기는 모두 아이치현에 위치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여자부 경기는 모두 이바라키현의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

한국 남자대표팀은 20일 오후 7시 종국과 첫 경기를 갖고, 24일 오후 4시엔 홍콩과 2차전을, 27일 오후 7시 20분엔 일본과 최종전을 치른다.

중고채 사고팔땐 골마켓 광주 일곡점

골마켓 광주 일곡점

각종브랜드 골프클럽/용품 판매

최고피팅 ◆ 최고시설 ◆ 최저가격

골마켓 의 정교한 피팅

최신식 분석 장비 완비중

중고채 사고팔땐

Go market

골퍼들을 위한 대만민국 NO.1 골마켓 광주 일곡점

- 그립교환**
- 클럽피팅**
- 트로피 제작**
- 골프볼 로고제작**
- 중고채 보상판매**